



# ITU-T SG13

TTA 광인터넷 PG 의장,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공학부 **최준균**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공업연구사 **양준규**  
TTA 표준화본부 정보통신팀 팀장 **김선**



## I. 회의 개요

1. 회의명 : ITU-T SG13 정기 Meeting

2. 회의 기간 : 2005. 8. 29 ~ 9. 9

3. 회의장소 : 스위스 제네바

4. 관련 Letter No. : Collective-Letter No,3/13

5. 참가자 : 총 17개 국 14개 sector member 158명

※ 한국측 참가자: 34명

- 국가대표(26명) : 양준규(전파연구소), 이재섭(ETRI), 최준균(ICU), 정희창(NCA), 정일영(외대), 장철웅(외대), 김동일(동의대), 이승희(인제대), 이우섭(한밭대), 김선, 김영재(이상 TTA), 엄태원, 권영환, 반세윤, 이규명(이상 ICU), 김상하(충남대), 김형준, 박정수, 홍용근, Tony Bonanno, 이승윤, 이강찬, 인민교, 최태상(이상 ETRI), 임성연(KT)
- KT(1명) : 최용민
- ETRI(7명) : 함진호, 김정윤, 곽동용, 정희영, 김도연, 김용운, 이은준

## 6. 제출 기고서 : 총 130건

- 한국측 제출 기고서 39건(국가기고서 : 31건, KT 기고서 1건, ETRI 기고서 7건)

## 7. 주요 결정사항 및 결과

- 향후 NGN 활동방향에 대하여 한국, BT 및 일본에서 제안이 있었으며, NGN JCA(Joint Coordination Activities)에서 논의결과, 2006년부터는 NGN Global Standards Initiative (NGN-GSI)라는 이름으로 Joint Rapporteur 회의를 갖기로 함.
- 4개의 권고안이 이번 회의에서 승인됨
  - ▷ 권고 채택 : Y.1711(MPLS 망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메커니즘)(TD104(Plen))
  - ▷ AAP 절차추진을 위한 초안채택
    - Y.cmip 가입자 관리형 IP망(TD110(Plen))[신규]

- Y.vpn-decomp VPN 기능분석[신규]
- Y.1413 TDM-MPLS 망 인터워킹-사용자측면 인터워킹
- IETF에서 IPv6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IETF와 협력을 요청하는 Liaison이 제출되었으며 Q.9/13에서 관련 협력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 Q8(서비스 시나리오)에서 선정된 신규 아이템
  - 한국이 제안한 웹서비스, 텔레매틱스, IPTV, VoIP, Media Conversion 등
  - 중국이 제안한 NGN 서비스 시나리오, UPT 서비스 시나리오 등
  - 폴란드가 제안한 Multi-play 서비스
- 기타 주요 신규 스터디 아이템 : RFID(Q3), 웹서비스(Q2) 등

ITU-T SG13은 NGN 분야의 리드 스터디 그룹으로 WTS2004의 결정에 따라, 이번회기(2005~2008)부터는 SG11, SG19와 함께 co-location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SG13은 아래와 같이 총 4개의 WG과

Questions	Title	의장
WP 1 : Project Management and Coordination		Mr.Helmut Schink(Germany)
Q1/13	Project coordination and release planning for NGN	Kyung Yeop Hong(Cisco)
Q11/13	General network terminology	Igor Faynberg(Lucent)
Q13/13	Public data networks	Lintao Jiang(China)
WP 2 : Funtional Architecture and Mobility		이재섭(한국)
Q3/13	Principle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for NGN	Keith Knightson(Canada)
Q6/13	NGN mobility and fixed-mobile convergence	Baofeng Zhang(Huawei)
Q9/13	Impact of IPV6 to an NGN	김형준(ETRI)
Q10/13	Interoperability of satellite with terrestrial and Next Generation Networks(NGNs)	Tolga Ors(Intelsat)
Q15/13	NGN security	Igor Faynberg(Bell/Lucent)
WP 3 : Service Requirement and Scenarios		Mr. Naotaka Morita(Japan)
Q2/13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scenarios for emerging services in NGN?	Marco Carugi(Nortel)
Q7/13	Network and service interworking in NGN environment	Ghassem Koleyni(Nortel)
Q8/13	Service scenarios and deployment models of NGN	정희창(NCA)
Q12/13	Frame Relay	Rao Cherukuri(USA)
Q14/13	Protocols and service mechanisms for Multi-service Data Networks(MSDN)	Shaohua Yu(China)



Questions	Title	의장
WP 4 : QoS and OAM		Mr. Neal Seitz(USA)
Q4/13	Requirements and framework for QoS for NGN	Hui-Lan Lu(Lucent)
Q5/13	OAM and network management for NGN	Gilles Joncour(France Telcom.)

15개의 Ques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SG13 회의에 1주 앞서 개최된 8차 FGNGN의 주요결과와 함께 SG13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요약 정리코자 한다.

서 작업된 문서를 SG13 중심으로 관련 Study Group에서 다루기로 함.

## II. 주요 회의결과

### 1. 제8차 FGNGN 주요 회의결과

- 이번 회의에서는 전체 201편의 기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중 한국이 19건의 기고서를 제출함.
- 지난 베이징 회의에서 소프트스위치 기반의 PSTN/ISDN 에뮬레이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본 회의에서 이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
- Lawful interception이 중요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이재섭 의장이 제기
- RACF Framework가 동의되었으며, 현재 작업되고 있는 것만 SG13으로 이관예정
- NGN QoS와 관련하여 작업되고 있는 결과물들은 SG12 또는 SG13으로 이관예정
- 미국의 Emergency communication을 Evolution과 Security 문서에 추가하고 승인함
- 향후 FGNGN 회의는 2005년에 11월 런던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이며, 이후에는 FGNGN에

### 2. 개회 및 폐회에서의 주요 내용

- TSB(ITU 파견근무중인 ETRI 최영한 박사)로부터 Technology Watch 그룹의 활동 소개가 있었으며, ITU-T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함
- IETF에서 IPv6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IETF와 협력을 요청하는 Liaison이 제출되었으며, Q.9/13에서 관련된 협력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 향후 NGN 활동방향에 대하여 한국, BT 및 일본에서 제안이 있었으며, 향후의 Joint Rapporteur 회의는 NGN Global Standards Initiative(NGN-GSI) 이름으로 NGN 관련 작업을 지속할 것을 결정. 그러나, 아직 NGN-GSI의 장 필요성 및 의장선출에 대한 부분은 미정
- 내년 1월부터는 SG13, SG11, SG19가 동일한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되, 각 Study Group의 Plenary 회의를 동일한 장소에서 serial 하게 진행하기로 함. 또한 SG12(Performance) 및 SG16(Multimedia)도 같이 회의할 의사를 표명하여, 해당 SG 회의에서 동의를 받으면 NGN과 관련하여 모두 5개의 Study Group이 동일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계획에 따라 운영될 경우 NGN 관련된 회의는 매년 초 및 여름 경에 전체 회의를 하고, 4~5월 경과 10월 경에 Joint Rapporteur 회의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이며, 내년 4월에는 NGN

과 Transport라는 주제로 일본 교토에서 워크숍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관련 Question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NGN 산하 또 다른 Focus Group 인 OCAF (Open Communications Architecture Forum) 회의가 SG13 회의 중간에 열렸으며, OCAF와 협력을 위해서 Carrier Grade Open Environment(CGOE) reference model 관련된 내용과 현 NGN 표준화 작업에서 누락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로 하였음.
- 현재 FGNGN에서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11월 런던에서 개최 예정인 마지막 FGNGN 회의 이후 금년말에 해당 Study Group으로 관련 문서를 이관하기로 함
- 아래의 문서를 이번 회의에서 consent하기로 함.
  - ▷ 권고 채택 : Y.1711(MPLS 망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메커니즘)(TD104(Plen))
  - ▷ AAP 절차추진을 위한 초안채택
    - Y.cmip 가입자 관리형 IP 망(TD110(Plen))[신규]
    - Y.vpn-decomp VPN 기능분석[신규]
    - Y.1413 TDM-MPLS 망 인터워킹-사용자측면 인터워킹

### 3. Working Party별 주요 회의결과

#### 3.1 Working Party 1

##### 3.1.1 Q.1/13(Project coordination and release planning for NGN)

- NGN Release 1 Scope 및 ITU-T NGN 로드맵, NGN 프로젝트 관리툴 등과 관련된 검토가 있었음.
- TSB 사무국에서 NGN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관

리를 위하여 NGN project management tool이 제안되었고, 시험적으로 <http://ngn-project.tizoo.com/>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9월 말 ITU 웹사이트에서 운영될 계획임을 공지

##### 3.1.2 Q.11/13(General Network Terminology)

- 진행되고 있는 관련 권고안 3건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SG13 Terminology Recommendation의 범위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되었으며, NGN Recommendations에 적용되는 Key term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3.1.3 Q.13/13(Public Data Networks)

- 현재의 public data network의 문제점에 관한 발표 및 논의가 있었으며 미래의 public data network의 요구사항에 대한 발표 및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음
- 아래 두 개의 문서가 검토되었으며, 회의결과 FGNGN의 WG7에서 다루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Q13/13으로의 이관을 희망하였음
  - COM 13 D 304: The Current Outputs of FGNGN FPBN
  - COM 13 TD91(Plen): Proposed allocation of FG NGN deliverables

#### 3.2 Working Party 2

##### 3.2.1 Q.3/13(Principle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for NGN)

- Q.4/SG13과의 합동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연구하기로 결정된 NGN에서의 ABR 모드와 관련하여 BT에서 제안된 두 개의 기고서가 검토가 있었으며, 이 기고서에 대하여 RACF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과 지난 회의결과에 따른 연구범위를 결정함.

- Q.11/SG13과의 합동 회의를 통해 3건의 문서가 검토되었으며, 특히 무조건적인 IMS의 수용을 반대하는 기고서가 ATIS로부터 제출됨.
- RFID, IPTV, NGN 서비스 아키텍처 등 한국에서 제출된 기고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토의를 가졌으며, 이들 이슈들을 Q3의 새로운 연구항목으로 승인
- 비상통신에 관한 논의 관련 논의가 있었으며, 관련 초안인 Y.NGN-ET-Tech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함. 아직 개발 초기단계의 문서로 많은 기고가 필요한 분야임
- 한국의 최준균 교수가 제안한 “가입자 주도형 IP망”에 대해 최종 승인함.

### 3.2.2 Q.6/13(NGN mobility and fixed-mobile convergence)

- Joint Rapporteur 미팅을 통한 Q2,5/19와 Q6/13간의 협력방안 논의가 있었으며, FMC는 NGN의 주요한 이슈로, 이동성 관리에 관련된 SBI2K 프레임워크 간에는 네트워크 견지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 NGN의 기능적 요구사항과 구조에 대한 FGNGN FRA 문서가 NGN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Q.6/13, Q.2/15 그리고 Q.2/15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합의
- FGNGN의 이동성(MOB) 문서와 NGN을 위한 IMS(IFS) 문서에 대한 Q.2/19와 Q.5/19 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음.
  - 다음 1월 회의에서도 Q.6/13, Q.2/19 그리고 Q.5/19간의 조인트 세션을 요청할 것이며, 세부적인 일정은 NGN 관련 question들에 대한

가이드 마련후 정해질 예정

### 3.2.3 Q.9/13(Impact of IPv6 to an NGN)

- Q.9/13 회의는 2005년 9월 5일, 7일까지 3일간에 개최되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12편의 기고서가 제출되고 논의됨. ETRI의 김형준 팀장이 Q.9의 Rapporteur로서 회의를 주재했으며, 3일간의 회의에 총 24명이 참석
- 제안된 12가지 Delayed 기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아래 3건의 드래프트 권고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Y.ipv6sig(IPv6를 사용하여 NGN에서 QoS 지원을 위한 시그널링 요구사항, Signaling Requirements for QoS Supports at the NGN using IPv6)
  - Y.ipv6req(IPv6기반 NGN에서 서비스 요구사항 및 기능적인 성능, Service Requirements and Functional Capabilities of IPv6-based NGN, Y.ipv6req)
  - Y.ipv6multi(NGN을 위한 IPv6 멀티홈밍 프레임워크, Framework of IPv6 Multi-homing for NGN, Y.ipv6multi)
- IETF로부터 제출된 Liaison(TD 90 (PLEN)) 문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IPv6 관련 작업에 대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IETF와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Liaison 문서(TD 57 WP2/13)를 작성함.

### 3.2.4 Q.10/13(Interoperability of satellite with terrestrial and Next Generation Networks(NGNs))

- 지난 모임에서 Q10/13에서 요청한 위성 관련 대표들에게 요청한 교섭문서를 받았으며, 라포처가 관련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갱신할 예정
- Q10/31의 다음 임시모임은 9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Sophia Antipolis에서 개최기로 계획됨. 이 미팅에서 ETSI BSM(Broadband Satellite Multimedia) 그룹과 다음 드래프트들을 승인하기 위한 토의를 가질 예정

- Y.SatIP-arch, Architecture for satellite IP networks
  - Y.SatIP-QoS, QoS architecture for IP over satellite
- 따라서 이번 SG13 정기모임 기간에는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음

### 3.3 Working Party 3

#### 3.3.1 Q.2/13(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scenarios for emerging services in NGN)

-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의 결과(TD37R1(3/13) of May 2005)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됨.
- NGN accounting, charging과 billing 기능(Y.ngn-account), NGN 멀티캐스트(Y.ngn-mcast)에 대한 권고안 수정작업이 이루어짐.
- Y.vpn-decomp(VPN functional decomposition)에 대한 최종 수정후 승인함
- IPTV 서비스 시나리오 및 RFID와 같이 Q3에서 발표되었던 기고서들이 함께 검토되었으며, 새로운 연구토픽으로 정해짐.
- 장애자의 접근성 필요에 대한 SG16의 liaison 문서가 검토되었으며, NGN Rel.1 문서의 보완 및 완성을 위해 접근성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한 점검 리스트를 차기 FGNGN 회의에 제출해줄 것과 지속적인 협력요청 문서를 TD98로 작성함.
- 또한 SG3에서 제출된 liaison 문서에 대한 답신으로 NGN charging에 대한 라포처 그룹의 생성을 부탁하고, 보완된 Y.ngn-account 문서를

첨부하여 TD 99를 작성함.

- NGN의 Accounting, Charging과 Billing 관리 정합에 대한 SG4 liaison 문서에 대한 답신이 TD100으로 작성되었으며, NGN의 accounting,charging과 billing 기능 관련된 정합에 대한 동의 및 NGN의 accounting, charging과 billing의 상세 구현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 스펙 개발 역할에 대해 작업책임을 나누는 방안을 제공하고 최종 버전의 Y.ngn-account 문서를 첨부하였음.

#### 3.3.2 Q.7/13(Network and service interworking in NGN environment)

- Call Server Convergence(Y.csem) : Draft 문서의 수정과 PES(PSTN/ISDN Emulation System)와 CS-PES 약어 수용, Call Server-based PES의 기본 Call Server 시나리오 절이 추가되었음
- Peer partition interworking(Y.ppi) : 일반적인 end-to-end adaptation layer의 사용에 대한 명확화를 제안, CAL fault indication의 같은 semantic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안, CAL 기능이 전송시 상대 serve layer partition과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제안이 수정 및 채택됨
- Tandom Free Operation(TFO)-IP Interworking(Y.tfo-ip): Q17/16에서의 liaison 처리를 했으며 관련 기고서 제안을 요청함
- TDM IP interworking(Y.tdmip): common interworking indicator의 length field를 처리하는 절차를 변경하는 제안, SG15 liaison에 밝힌 timing 이슈에 대한 토론 및 전체적인 문서검토가 있었고 1월에 있을 다음 SG13 회의에 승인검토를 할만큼 문서가 안정화되었다고 동의함
- Voice Trunking over IP(Y.vtoip) : 추가적인 functional diagram의 필요성을 제외한 다음



SG13 회의에 승인검토를 할만큼 문서가 안정되었다고 동의됨

- Y.1401 Revision(Y.1401Rev) : 관련 기고서 제안은 없었으며, informal 회의를 통해 interworking의 원칙, type과 컴퍼넌트 추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 Y.1413 Corrigendum : 2개의 기고서를 통해 문서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문서에 대한 승인

### 3.3.3 Q.8/13(Service scenarios and deployment models of NGN)(정희창, 이승희, 김동일)

- Q.8 회의는 9월5일(월)부터 7일(수)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지난 4월회의와 달리 많은 기고서(총14편)가 제출되었으며 회의결과 9건의 리빙리스트와 3건의 드래프트 권고안을 채택하였음.
- 한국, 중국, 폴란드로부터 총 14편의 기고서가 발표됨
- NGN 상에서 UPT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기고서가 중국측에서 제안되었으며, 이미 UPT가 표준안으로 제시된지 오래된 서비스이며 현재 NGN의 개념 상 새로운 서비스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일본 측과 캐나다 측의 의견과 이를 드래프트 권고안으로 밀어 부치려는 중국 측과의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며 우선 중국 측의 주장대로 드래프트 권고안으로 상정하였음.
- 융합서비스인 Multi-Play 서비스를 위해 융합된 부가가치 서비스 시나리오, 홈네트워크 기반의 시나리오, 고정단말과 이동단말 사이의 VPN 서비스 시나리오 등을 중국에서 제안하였으며, 회의에서 NGN 서비스에 대해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내용을 드래프트로 만들기로 결정하였으며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일치.
- NGN 상에서의 텔레매틱 서비스, NGN 상에서

의 VoIP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AAA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서비스와 같은 기고를 ETRI에서 제안하였으며 신규 리빙 리스트로 채택됨.

- 현재 TD 19(WP 3/13)의 리빙 리스트 2번에 제시된 NGN 상의 VoIP 서비스 시나리오를 NPHONE 서비스 시나리오로 갱신하자는 제안이 한국에서 있었으며 채택됨.
-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NGN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기고서가 한국에서 제안되었고, Question 레벨에서 드래프트 권고안으로 작업할 것에 동의
- NGN 도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표준화된 IPTV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고서가 KT에서 제안되었으며, 이는 Q2에서 추진키로 함.

### 3.3.4 Q.12/13(Frame Relay)

- MPLS Control Plane Interworking 문서검토  
8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TD 57, D223, TD63, TD64 문서승인을 위한 리뷰가 있었으며, 검토결과 TD 69와 TD 70 문서로 제작되었으며, 조인트 미팅에서 승인되어, 다음과 같은 Y. 시리즈 문서로 갱신되었음
- Y.mplsccpi - ATM and Frame Relay / MPLS control plane interworking: Client-Server
- Y.mplstcpi - Use of Virtual Trunks for ATM/MPLS Client/Server Control Plane Interworking
- Frame Relay 문서검토  
9월 7일 TD 56와 TD 66의 문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TD 56문서는 검토결과 승인되어 MFA Forum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으며, TD 66 문서는 에

디터에 의해 문서정보가 전달되었으며, 기고서들을 요청했음  
회의결과 Q4/11과 Q7/13과의 조인트 미팅을 통하여 MPLS and Frame Relay Alliance 포럼으로 MPLS control plane interworking 문서를 보내도록 승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도출

- Draft new ITU-T Recommendation X.84 Amendment 1 – Control protocol for PVC maintenance and status monitoring
- Draft new ITU-T Recommendation Y.mplsccpi – ATM and Frame Relay / MPLS control plane interworking: Client-Server
- Draft new ITU-T Recommendation Y.mplstcpi – Use of Virtual Trunks for ATM/MPLS Client/Server Control Plane Interworking

### 3.3.5 Q.14/13(Protocols and service mechanisms for Multi-service Data Networks(MSDN))

- Q.14/13 회의는 라포치의 참석이 불가능한 관계로 Mr. Naotaka MORITA(NTT) acting 라포치의 주제로 9월 7일 회의가 진행됨.
- 회의의 주요결과는 4개의 기고서와 1개의 Liaison 문서의 검토
- 본 Question의 work scope는 MSDN(multi-service data network)를 위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것과 여기서 개발된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서비스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기존 패킷 프로토콜을 확장하던지 새로운 패킷 프로토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MIB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됨.
- FGNGN WG 7 작업 결과물이 SG13에 적용되기 전에 SG15에 전달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

요하다는 제안이 SG15에서 있었고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작업이 드래프트의 질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였음

## 3.4 Working Party 4

- 이번 회의 동안 Y.1711(Amendment)가 AAP approval process로 승인되었음
- 차기 회의 전 중간회의로 Q.5/13 Y.17ethoam을 위해 11/28 12/2 시카고 Tellabs에서 하기로 결정됨. Q.9, 11, 12에서도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임

### 3.4.1 Q.4/13(Requirements and framework for QoS for NGN)

- Q.4는 'NGN을 위한 QoS 요구사항 및 기본구조(Requirements and Framework of QoS on NGN)를 연구하는 그룹으로 모두 6개국에서 25명이 참여하였으며 6개의 기고서와 3개의 liaison 문서를 다루었음.
-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FG NGN의 WG3에서 진행한 연구결과의 검토임. 제출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간단한 발표와 검토를 거쳐 지속적인 연구를 합의함.

### 3.4.2 Q.5/13(OAM and Network Management for NGN)

- Q.5/13은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Rapporteur Mr. Gilles JONCOUR(France Telecom)를 중심으로 9개국 15개 기관을 대표하는 20여 명의 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였음.
- 기고서, TD, Liaison 문서 등 모두 50개 문서를 이번 회의 중에 검토함.





- 회의 Agenda는 TD30(WP4)에 포함되어 있고, Interworking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 Q.7/13과 함께 9월 6일 한번의 Joint 미팅을 가짐.
- 본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들이 이루어짐.
  - Y.17ethoam(Ethernet OAM) 권고안 추가 작업
  - Y.17fw(MPLS Management 프레임워크) 권고안 미래 작업일정 토의
  - Y.17tdm 권고안 미래 작업 일정 토의결정
  - 다른 기관들과의 협조방안 검토
- 향후 활동계획 및 권고사항.
  - 다음 중간 회의는 11월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릴 예정이며, SG15의 Q.9, 11&12 전문가들과 함께 joint meeting을 가질 예정임.
  - 직접 회의 외에 TIES Q5/13 메일링 리스트를 이용하여 계속 논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참여자들은 해당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할 것을 권고함.
- 본 Question에는 현재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 추진 중인 BcN 관련 장비의 기능구현 및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따라서 국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차기 회의부터는 적극적으로 기고 및 참여를 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 4. 국제 협력 관련 사항

- FGNGN 이후의 NGN 표준화를 위한 후속 작업에 대한 논의결과, 내년 1월 이후의 NGN 작업에 대하여 NGN-GSI로 명명하는 것으로 동의함. 그러나 아직 GSI 의장선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현 FGNGN 의장이 지속적으로 맡는 것을 추진할 예정임.

-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Q.8/13의 작업영역과 Q.2/13의 작업영역이 일부 중복이 되어 다음 회의 전인 10차 런던에서 개최하는 FGNGN 회의에서 Q.2/13과 Q.8/13 작업영역에 대한 조정을 하기로 함.

#### 5. 차기 회의일정

- 차기 SG13 회의는 2006년 1월 16일~ 1월 27일 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
- FGNGN의 마지막 회의는 11월 14~18일간에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중 18일은 Industrial Event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음.
- 또한, 내년 1월 회의부터는 SG11, SG13, SG19가 동일한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NGN-GSI(Global Standards Initiative) 형태로 현 FGNGN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음.
- 2006년 4월에 일본 교토에서 NGN 및 Transport 워크숍이 개최되고, 동시에 NGN-GSI 산하 여러 Joint Rapporteur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III. 맺음말

이번 회의는 위에서 정리한 회의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대표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했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제안한 CMIP(가입자 관리형 IP 망)가 권고 승인절차를 위한 최종 승인이 되는 큰 성과를 거둔 회의였다. 이외에도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NGN QoS 및 IPv6 관련

권고안들이 국내 전문가들의 기고와 노력으로 국제표준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으며, RFID, IPTV, 웹서비스와 같은 신규아이템들이 제안됨으로써 국내의 기술을 국제표준화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월에 개최되는 런던 FGNGN 회의를 끝으로 FGNGN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FGNGN을 통해 NGN 표준화를 주도해 왔던 한국으로서의 FGNGN 이후의 표준화 활동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ITU 회의방향이 다소 수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06년도에 Joint Rapporteur 형태로 진행될 NGN GSI에 효과적인 참여와 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그리고 SG13 이외에도 NGN과 많은 관련이 있는 SG2, SG3, SG4, SG11, SG16, SG19 등에 참여하는 국내표준화 전문가 및 해당 국내 분과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NGN의 국내표준화 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NGN 표준화를 통한 국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산업체로부터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TTA**